

보도자료

보도 희망일	제한없음(즉시)
문의	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
	전진희 전화: 033-339-5650, 이메일: gracee@snu.ac.kr

배포일: 2023.3.29.(수)

서울대 평창캠퍼스,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협의회 발족식 및 업무협약

- 농업분야 신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그린바이오분야 육성을 위한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협의회가 발족했다.
-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정황근)는 2023년 3월 27일(월)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에서 개최된 발족식에는 위원장인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을 비롯하여 김진태 강원도지사,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함께 자리하였고, 5개 지자체(대전, 충북, 경북, 경남, 제주)의 부시장·부지사, 정부부처, 유관기관장, 학계 및 관련 업계가 폭넓게 참여했다.
- 그린바이오 분야는 큰 성장잠재력에 비해 발전이 더딘 분야였다. 농식품부는 이러한 현안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예산을 담당하는 기재부, 인력양성을 담당하는 교육부, 연구개발과 실용화를 담당하는 과기부와 중기부, 농진청, 산림청이 참여하고 규제혁신을 위해 환경부와 식약처 및 유관기관과 지자체까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었다.
- 이날 발족식에는 지역별 그린바이오 분야 우수사례에 대한 전시가 진행되었으며, 천연물을 활용한 기업-농가 상생사례(대학두유(주), 강원), 미생물 사료첨가제 수출 모델(주)에코비즈넷, 전북), 식물백신을 활용한 가축질병 예방 사례(주)바이오엠플, 경북) 등이 소개되었다.
- 또한 우수사례 중 하나인 대학두유(주)의 생산공장을 방문하여 강원지역 약콩의 소재화를 통한 그린바이오 제품 제조 공정을 살펴보고, 기업·작목반 관계자를 만나 그린바이오를 매개로 한 기업-농가 상생 사례를 직접 확인하였다. 대학두유(주)는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부

지 내 공장을 설립하였으며,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직접 작목반을 구성(113농가)하여 기능성 제품 상용화 및 대량생산에 성공한 사례이다.

□ 발족식 본 행사에서는 CJ제일제당 신용욱 상무의 기조강연(그린바이오 산업의 미래)과 함께 지자체·학계·업계 등이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. 특히 그린바이오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불필요한 규제 개혁 및 혁신적인 제도 환경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고, 적극적인 규제 개혁과 소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다.

□ 한편, 발족식과 함께 농식품부와 7개 시·도 간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. 각 기관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통한 농업인 소득 증대와 농업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농업과 그린바이오 기업의 연계 강화, 수출 활성화 사업 등에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. 이를 통해 지자체 간 협업이 강화되고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.

□ 정 장관은 “그린바이오 산업이 활성화됨으로써, 농식품산업의 외연이 확장되고, 새로운 수출 판로가 개척될 것”이라며, “그린바이오 산업은 미생물 비료·농약 등 농자재를 개선하고, 식품소재 계약재배를 통해 농업의 새로운 판로 역할을 하는 등 우리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”이라 강조했다.

□ 임정빈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장은 “대한민국을 넘어, 아시아, 또 세계에서 그린바이오의 메카로써 연계, 융복합을 통한 그린바이오 과학 기반의 발전을 이루길 희망한다”고 전했다.